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6월(제7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1년 동안 다양한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가 펼쳐집니다!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오이타현

다케타시 독일 출신 국제교류원이 소개해 드려요
 Moin moin, 다케타! 다케타시



지난 22일,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오이타현' 개막식이 벵푸시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에서 매년 문화예술을 통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1년간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국 경주시, 중국 원저우시/지난시, 일본 오이타현이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개막식은 교류 도시 기관장의 축하 및 도시 소개 영상 상영, 홍보 대사 헬로키티의 개막 선언, '벵푸 아르헤리치 음악제'의 총감독 마르타 아르헤리치 씨의 개막 기념 연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행사로 현 내의 문화예술 단체가 공연을 선보이는 등 현민을 비롯해 많은 참석자에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는 독일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설치 미술가 '시오타 치하루'의 개인전과 교류 도시의 예술가를 초청하여 현 내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트 인 레지던스'를 개최하는 등 현 내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케타 시립 도서관은 마을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축물로, 도서관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삼나무, 지식의 향기와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고,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테라스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느껴 보세요.



다케타시 성하 마을 교류 플라자 커뮤니티 룸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다케타에 거주 중인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시간 반 동안 일본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프리 토크, 게임을 하는 등 즐겁게 교류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다케타시 국제교류원 짐머만 엘리자
zimmermann-elisa@city.taketa.lg.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6월(제7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천천히

사이키에서 꼬다꼬다 걸으며 자연을 느끼다

규슈 올레 : 오뉴지마 코스 사이키시

오이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한국인임을 밝히면 “지역 상, ‘오루레’ 한번 걸어야겠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오루레? 왠지 제주의 ‘올레’를 의미하는 듯했지만, 설마 오이타에서 올레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던 나는 그게 무엇이나 되레 물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규슈 올레(九州オルレ)’라는 게 있으며 그중 두 코스가 오이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규슈 올레는 제주도의 도보 여행 코스 ‘제주 올레’의 자매 버전으로 제주 올레를 만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해외에 조성한 도보 여행 코스이다. (사)제주올레가 직접 규슈 올레의 코스를 개발 및 자문하고 길 표식 디자인 등을 제공했는데, 코스의 방향을 알려 주는 화살표의 색깔을 제주 올레가 감귤을 상징한 ‘주황색’을 사용한 데에 비해 규슈 올레는 도리이(鳥居)의 색이자 일본 문화를 표현하는 ‘다홍색’을 사용했다.

2022년 6월 기준 규슈 전 지역에 총 18개의 코스가 열려있으며, 가능한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웅대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는 규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즐기고 걸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규슈 올레의 특징이다. 사실 나는 도보 여행이나 등산에 정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오이타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번은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었기에 처음으로 규슈 올레를 다녀왔다.



오이타현 내의 규슈 올레는 분고노시, 다케타시를 거치는 ‘오쿠분고(奥豊後) 코스’와 사이키시의 오뉴지마 섬을 걷는 ‘사이키·오뉴지마(さいき・大入島) 코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첫 도전인지라 비교적 거리가 짧은 사이키·오뉴지마 코스(9.6km)를 선택했다. 오뉴지마 섬은 JR 사이키역에서 도보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사이키항에서 한 시간에 최소한 번 운행하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으며, 다른 관광지에 비해 비교적 교통편이 잘 마련되어 있어 차를 렌트하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었다.



사이키·오뉴지마 코스는 섬 아이들의 옛 통학로였던 공통 코스(산길)를 지나면 분기점에서 <A. 산 정상에서 360도로 사이키만이 보이는 도오미산 전망소를 지나는 코스> <B. 해안선을 따라 걷다 바다 전망소를 지나는 코스>로 나뉜다. A 코스는 산 정상에서 보이는 전망이 멋지다고 들었으나 도보 여행 초보인 나의 체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B코스를 선택했다. 이처럼 본인에게 맞는 코스를 골라 ‘놀멍, 쉬멍, 걸으멍’ 올레를 즐길 수 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6월(제7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섬에 도착하면 길을 안내하는 파란색(정방향)과 다홍색(역방향)의 화살표와 리본을 따라 걸으면 된다. 이곳을 걸으며 느낀 점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전혀 아니어서 의문이 들었다. 걷기 쉽도록 잘 정돈되고 포장된 길이 아니라, 마을 민가의 골목길과 사유지 감귤밭, 정돈되지 않은 외진 바닷길, 경사가 심한 산길과 숲길 등 있는 그대로의 섬 모습을 담은 코스가 방문객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규슈 올레를 조성한 (사)제주올레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손질을 더하되 자연 그대로의 길을 유지하려 한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길가의 나무와 풀, 흙과 돌맹이를 느긋하게 살피며 자연을 즐기도록 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였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도보 여행을 위해 주의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유 여행인 만큼 개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개인적으로 혼자 보다는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더 즐겁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올레길을 좋아하는 지인은 계절별로 올레길을 걸으며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 다르기에 즐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달랐다. 평소 운동량이 ‘0’이었던 내가 갑자기 하루에 1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걷자니 꽤 힘들었고 솔직히 자연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 지점까지 간 스스로가 매우 대견했고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올레길은 이렇게 자연을 즐겨도 좋고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달성해도 좋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보 여행 코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규슈 올레를 걸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이키·오뉴지마를 만끽해 볼 것을 추천한다.



- 빨간 선 : 공통 코스
- 보라 선 : A 코스
- 파란 선 : B코스

- ① 캥거루 광장
- ② 페리 ‘마린 버스’ / ‘조에이마루’ 승강장
- ③ 후나가쿠시 제방
- ④ 하늘 전망소 가는 길
- ⑤ 감귤밭 부근
- ⑥ 도착 지점(이시마 항)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6월(제72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17화

이봐도
요청하지 않은 Q&A

<특집> 알려 줘요! 노지상!

질문



질문
하든지~

안녕하세요? 노지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갑자기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 맘대로 Q&A를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 받은 적 없음)



그럼
가시요!

아니, 처음엔 그렇게 술 싫었다고...

그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이 저 술먹는 거 보면 놀라세요ㅋㅋ
잔차 인생 한치 앞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술 먹는게 왜 재밌나요?

1. 다 같이 취해서 텐션도 같이 올라가요.
2. 즐거울 때 같이 술먹으면 더 즐거워져요.



술 취해서
갑자기
가발 쓴 친구!!

주량이 얼마나 되나요?

소주 한병은 먹을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의외죠?)



* 주종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숙취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숙취가 있다면 인정하고 현대문물의
힘을 빌리세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소맥이 뭘가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말 그대로 소주+맥주입니다.
소맥 맛있게 마는 법 살짝 알려드릴게요!

- ① 유리잔에 1:3 (소주:맥주) 비율로 따른다.
- ② 쇠젓가락을 이렇게 꽂는다.
- ③ 다른 쪽 젓가락으로 트라이앵글을 하듯 대러이며 거품을 낸다.



여차저차해서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길어졌는데요, 다음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 오겠습니다!

끝

